

[ 사회 ]

### 공원 빼앗은 '공룡마트'

# 물건만 팔고 돈은 서울로

- ① 시민 주차장 독식, 빼앗긴 삶의 질
- ② 상권의 블랙홀...영세 상권 초토화
- ③ 지역사회 유출, 고용효과 무색
- ④ 허가 내 준 광주시, 대책은 없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발해 지역 소비자에게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광주지역에 대형 유통업체간 제2라운드 전쟁을 점화한 롯데마트 월드컵마트는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변 영세상권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1천3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재중심이 아닌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대형 마트 개점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고용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에 가깝다. 롯데마트 월드컵마트 개점으로 지역에서 채용된 1천300여 명중 140여 명만 월드컵마트 측에서 급여를 주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입점 업체에서 자체 고용해 급여를 주는 일명 '협력업체' 직원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도 월 100~150만원 수준이고 직영직원인 140여 명도 임시직으로 고용의 질(質)이 높지 않다. 인근 음식점 등 영세상가의 점원들이 대거 월드컵마트 이동하면서 주변에 인력 공백현상을 초래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지역별이 아닌 대형 마트의 더 큰 문제는 본사가 아닌 1개 영업점이다 보니 인사·노무·재무 등 정상적인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업점에는 의사 결정권이 없어 상품판매 역할만 한다.

이로 인해 자금의 역외유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경우 매출에서부터 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을 지역 내에서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지만 롯데마트 월드컵마트 처럼 영업점형태로 운영될 경우 벌어들이는 자금이 본사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유통업체에선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등 본사로 유출하는 자금이 하루 평균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점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또 다른 맹점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역업체들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국에 몇 군데 있는 본사 물류센터 등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반면 향토업체인 빅마트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1천여 개 업체로부터 1차 상품인 농수축산물의 90% 이상을 직접 구매한다. 지역별인인 광주 신세계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차 상품의 70%가량을 사들여 백화점과 이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더라도 현지법인을 설립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역별인으로 운영할 경우 자금 운영이 현지에서 이루어져 재투자 등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런 자금으로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을 벌인다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중·고 신입생 5월까지 사복 착용

#### 교복 구매 학교운영위 심의 거치도록

##### 교육부 공동구매 활성화 나서

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고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의 경우 중학교 82개교 중 29개교, 고등학교 61개교 중 10개교 등 총 143개 중 39개교(27.3%)가 공동구매를 실시해 공동구매비율이 서울(27.8%)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은 중학교 230개교 중 15개교, 고등학교 127개교 중 3개교 등 총 357개교 중 18개교(5%)만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었다.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733개교(14.6%)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월에 교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가 86.6%(71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은 57.4%였다. 광주 70개교(85.4%)와 전남 126개교(54.8%)는 올해도 5월 이후 교복을 입힐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는 전남이 4.7%(6개교)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1.6%(1개교)에 그쳤다. 동복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면 교복 평균가는 22만3천원 정도였지만 공동구매시 낙찰가격은 평균 13만원으로 9만2천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출근길 안개 조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늦게 구름이 많겠다.

**2월 7일**  
(음 12월 20일)  
◇전국날씨

광주	맑은 뒤 구름많음	3~15°C
대전	맑은 뒤 구름많음	4~14°C
대구	맑은 뒤 구름많음	5~13°C
부산	맑은 뒤 구름많음	3~15°C
서울	맑은 뒤 구름많음	-1~16°C
인천	맑은 뒤 구름많음	-1~16°C
울릉도	맑은 뒤 구름많음	-1~14°C
독도	맑은 뒤 구름많음	-1~16°C
제주	맑은 뒤 구름많음	3~16°C
경북	맑은 뒤 구름많음	1~14°C
충청	맑은 뒤 구름많음	3~16°C
전남	맑은 뒤 구름많음	3~15°C
전북	맑은 뒤 구름많음	-1~16°C
강원	맑은 뒤 구름많음	3~15°C
제주	맑은 뒤 구름많음	3~15°C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5:13 썰물 < 10:25  
여수 밀물 < 11:51 썰물 < 17:57

▲해돋이 07:27 ▲해질 18:06 ▲달돋 22:51 ▲달질 09: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씨						
최저/최고	5/10	4/9	0/9	-2/7	-2/8	0/10

### 월드컵물 직접 고용 10%대 불과 대형유통업체 하루 30억씩 송금



형사요원 혁신토론회  
광주 서부경찰서(서장 하태욱) 강력범죄 수사팀 형사들이 6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형사요원 혁신토론회'에는 60여 명이 참가. '검거 및 수사기법' '인권보호 향상' '형사업무 발전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공정위 교복업체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광주·전남 등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 대리점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복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4개 메이저 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공동구매에 대한

대조 ▲가격담합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고가의 사은품·경품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의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 활개

#### 영산강환경청 30명 고발

겨울철을 맞아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밀렵한 사냥꾼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밀렵단속을 벌인 결과, 20회에 걸쳐 30명을 적발해 검찰 등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모(56)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무안군 무안읍 철새도래지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를 포획하려다 단속 중인 환경청 직원에게 붙잡혔다.

광주시도 6일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모(50)씨 등 6명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산구 양산동 농로에서 공기총으로 오리·산비둘기 등을 사냥하다 적발됐다.

/임주형기자 jhlim@

### 광주·전남 병원 집단휴진 없을듯

#### 11일 서울집회 일부 회원들만 참석

투약(投藥)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광주·전남 의사회가 휴일인 11일 서울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평일에 정상진료키로 해 환자를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광주시 의사회(회장 허정)는 7일 오후 북구 신안동 의사회관에서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광주시의사회 소속 회원은 2천500여 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광주지역 의사들은 거의 동참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진료업을 제한한 개정안을 비판하는 토론회 수준의 소극적 투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회(회장 최영식)는 앞서 6일 밤 시·군 단위로 '반사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저지 켈기대회' 참여 방식 등을 논의했다. 소속 회원은 1천700여 명이며, 서울 집회 참가자 수는 9일 오후까지 집계된다.

한편 서울시·인천시 의사회는 6일 오후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시 의사회 간부 한 명이 칼로 자신의 배를 갖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의사회는 6일 오후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시 의사회 간부 한 명이 칼로 자신의 배를 갖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미성년자 고용 위반

#### 편의점등 58곳 적발

광주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달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패스트푸드점·일반음식점·편의점 등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8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연소자 증명서 미비 47건(42.3%)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43건(38.7%) ▲최저임금 위반 3건(2.7%) 등 순이다. 노동청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액분 22만9천원을 추가징료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07년 10월 국제영어학원 10주년 화동사범대학**

최우수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100만원 상당의 국제영어학원 학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우수학생에게는

1. 장학금	100만원
2. 장학금	50만원
3. 장학금	30만원
4. 장학금	20만원
5. 장학금	10만원

이외에도 우수학생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국제영어학원 학비를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100명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100명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100명입니다.

www.101010101010.com

333-9582

CANADA, SOUTHBAY COLLEGE OF TON

#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고등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 환영

www.southbay.co.kr

062-222-8250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0605-313-1111